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에 2차전지 생산라인 증설

김교현 “양극박 전문기업 도약”

(롯데그룹 화학 BU장)

안산1공장서 생산라인 증설 준공식
코로나 상향 고려 예방수칙 준수
DT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롯데알미늄이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 확대에 나선다.

롯데알미늄은 14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산업단지에 소재한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에서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라인 증설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및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가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양극박은 2차전지의 필수소재로,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층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의 이동 통로역할을 하는 소재다. 또한 높은 열전도성으로 전지 내부의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총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된 이번 증설을 통해 롯데알미늄의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능력은 1만2000톤으로 대폭 증가하게 됐다.

특히 기존 식품용 알루미늄박 생산라인과는 분리된 양극박 전용 생산설비를



14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산업단지 소재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에서 진행된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라인 증설 준공식에서 (왼쪽부터) 최문규 롯데알미늄 소재사업본부 알미늄박 부문장 상무, 오성원 롯데알미늄 노조위원장,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김민우 롯데그룹 화학BU 상무, 한충희 롯데알미늄 소재사업본부장 상무가 사진을 찍고 있다.

도입하고, 디지털기술(DT) 기반의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제품 생산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교현 화학BU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 양극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생산라인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며 “반세기 동안 축적된 알루미늄박 생산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의 양극박 소재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인

롯데알미늄은 알루미늄박 및 약품·식품 포장재, 캔·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전기차 2차전지용 양극박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헝가리 티터바너 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규모 1만8000톤에 이르는 전기차용 2차전지 양극박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내년말 완공 시 롯데알미늄은 연간 3만톤 규모의 양극박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전자, ‘생체리듬 LED’ 조명 출시

빛 조절로 사용자 컨디션 관리 도움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과 생체리듬에 따른 빛 조절로 사용자의 컨디션 관리를 돕는 ‘생체리듬 LED 조명’을 출시하고, 인간 중심의 조명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4일 빛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컨디션 관리를 돕는 ‘생체리듬 LED 조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낮에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밤에는 깊이 잠들도록 도와주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다. 생체리듬 LED 조명은 빛의 파장을 이용해 몸에서 나오는 생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멜라토닌분비가 억제되면 신체활동이 왕성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반대로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휴식에 도



삼성전자 모델들이 멜라토닌 호르몬 조절로 집중력 향상과 숙면을 돕는 ‘생체리듬 LED 조명’을 소개하고 있다.

움이 된다.

가정용 방 등은 집중, 휴식, 일상 등 3가지 생체리듬 모드를 지원하며 터치형 리모컨을 통해 모드 변경과 10단계 밝기 조절도 가능하다. 데스크 램프는 색온도 5단계, 밝기 7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가격은 방 등 24만원대, 데스크 램프 8만원대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 NBP, ‘로한M’ 글로벌 히트 지원

플레이워드 ‘게임팟’ 운영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 ‘게임팟’ 지원으로 플레이워드의 모바일 MMORPG 히트작 ‘로한M’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로한M은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2위에 오른 흥행 게임으로, 이번에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또한 로한M은 작년 말 대만 론칭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9일에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하며,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인기 1위를 달성했고, 필리핀에서는 게임인기 3위, 총매출 8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로한M이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



로한M 이미지.

/플레이워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게임의 개발 리소스를 줄여주고 운영의 편의성은 높여주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게임팟이 있다. 플레이워드는 지난 2019년부터 게임팟을 통해 로한M 게임을 운영해왔으며, 게임팟을 통해 쿠폰, 결제, 로그인, 푸시, 통계 등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전자, 스마트 사이니지 콘텐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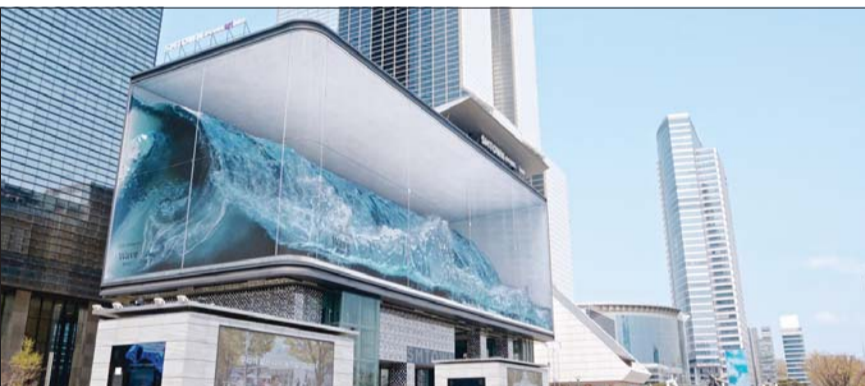
디스트릭트와 파트너십 체결
사용자에 맞춤형 콘텐츠 제안

삼성전자가 14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디스트릭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SM타운 외벽에 설치된 약 1620㎡ 규모의 초대형 삼성 LED 사이니지를 통해 입체적 파도 영상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 사이니지에 활용할 콘텐츠를 디스트릭트와 함께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제품뿐만 아니라 맞춤형 콘텐츠를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대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SM타운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삼성 LED 사이니지를 통해 공개된 입체적 파도 영상.

중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전세계에 이색적 미디어 경험을 선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하혜승 전무는 “디스트릭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 사이니지가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며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력에 콘텐츠 경쟁력을 더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스크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티앤씨, ‘리업 페이스 마스크’ 완판

효성티앤씨의 항균·소취 섬유를 사용해 만든 안다르의 에슬레저용 마스크가 출시된 지 3일 만에 완판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효성티앤씨는 14일 국내 리딩 에슬레저 전문 브랜드 ‘안다르’의 요청에 따라 ‘리업 페이스 마스크’ 15만장을 추가 제작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가 출시 3일만인 지난 2일 조 기품절 되면서 소비자들이 추가 제작

및 판매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늘어나자 소비자들은 마스크의 기본 기능인 발수(물이 닿는 순간 원단의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튕김)와 더불어 귀가 아프지 않은 신축성, 땀이나 습기에도 냄새나지 않는 소취 기능, 재사용 가능한 경제성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조기품절된 마스크에는 효성



안다르가 효성티앤씨의 항균·소취 섬유를 사용해 만든 ‘리업 페이스 마스크’.

티앤씨의 항균 기능이 뛰어난 폴리에스터 ‘에어실버’와 소취 기능 및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덱스 ‘크레오라 프 레쉬’가 적용됐다.

/김수지 기자

SK루브리컨츠, 친환경 엔진오일 5종 공개

제로테크 기술 적용… 내달 정식 출시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가 친환경을 강조한 엔진오일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14일 SK루브리컨츠가 제품 용기부터 성능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윤활유 ‘SK ZIC ZERO(지크 제로)’ 5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달 정식 출시한다.

제품 용기는 폴리에틸렌(PE) 성분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제품 뚜껑에도 용기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고, 용기입구를 막는 은박 포장도 제거해 분리수거를 간편하게 했다. 제품 포장 종이박스도 재활용 박스를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되도록 염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SK 지크 제로 신제품은 연비 개선 효과가 뛰어나 성능도 친환경적이다.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기유를 자체 개발하는데, 이번 신제품에 최신 기유 제품인 ‘유베이스 플러스’를 사용했다. 유베이스 플러



SK루브리컨츠 직원이 SK ZIC ZERO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스는 끈적이는 성질인 점도가 낮아, 엔진의 마찰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마찰이 줄면 엔진 효율이 좋아져 연비가 개선된다. SK 지크 제로 신제품은 최신 국제 규격이 요구하는 연비개선효과보다 약 17% 뛰어난 효과를 낸다.

SK 지크 제로는 SK루브리컨츠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제로 테크’ 기술을 적용해 엔진 보호 성능도 뛰어나다. 이 기술로 제작한 첨가제는 엔진 표면을 필름처럼 보호해 기존 제품보다 엔진 마모를 약 30% 이상 줄인다. 또한 열에도 강해 성능을 잘 유지한다. 불순물의 원인이 되는 회분 성분이 낮아, 배기 가스를 줄여주는 후처리 장치(DPF)가 막히는 현상도 최소화한다.

/김수지 기자